

“광주에서 얻은 영감, 예술로…등불같은 작가 되고 싶어요”

2026년 올해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선의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예술가들이 많다. 미술, 공연 등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지역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한다.

2026

꿈을 쏘다 <1>한국화가 심다이

부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화가 심다이 씨(34)의 얘기다.

그가 고향을 떠나 전북으로 광주로 떠돌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나는 커서 화가가 될 거야’라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자라고 보니 부모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미술하면 먹고 살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난감했다. 어렸을 때부터 줄곧 ‘나는 화가가 될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얼마 전 심 작가는 ACC디자인갤러리에서 진행한 박사학위 청구전(국립군산대 예술대학)을 마무리했다. ‘More than Paradise’전은 꿈인 듯, 현실인 듯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모티브로 한다. 현실과 비현실, 이성과 비이성,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법은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자는 최근 전시를 성황리에 마친 심 작가와 인

부산 출생, 군산서 대학 광주서 활동
한국 채색화, 전통 기반 꿈·현실 교차
남도 자연은 큰 위로…작품에 담아

터뷰를 했다. 서구 화정동에서 한국화 아틀리에 ‘미감’을 운영 중인 그는 화가로서 오늘이 있기까지 우여곡절의 시간을 풀어냈다.

“고등학교 시절 화가가 되고 싶어 부산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예고로 전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가 심했어요. 한동안 필통에 4B연필만 넣고 다니며 ‘난 언젠가 그림을 그릴 거야’라는 꿈만 꾸었죠. 그러다 예고 홈페이지에서 전학 실기시험 공지를 보게 됐고, 학교 미술 선생님 소개로 시험 준비를 하러 화실에 다녔어요. 예고에 꼭 가야겠다는 일념밖에는 없었습니다.”

화실에 다니는 동안은 새벽 내내 연습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준비해서 예고에 갈 수 있었다.

심 작가는 “이후 미대만 가면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 반대가 심했다”며 “그래서 집에서 좀 멀고, 학비를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다 생활비만 벌면 되는 곳을 많이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가 군산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다. 그때까지만 해도 산과 바다가 있는 부산에 살다가 군산으로 가는 버스에서 지평선을 처음 봤다. ‘아 내가 정말 다른



부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대학을 마치고 광주에서 활동하는 심다이한국화가는 “위로를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아틀리에 ‘미감’에서 포즈를 취한 심 작가.

곳으로 왔구나’하는 실감이 들었다고 심 작가는 회고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의 미대에 진학했던 터라 “방학이나 학기 중에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다”고 한다. 전북미협 아르바이트, 시강이나 카페 알바, 디자인 포토샵 알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공모전에 그림도 내는 등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다.

한국화를 평생 진로로 생각하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때 수목화 강의를 들으면서였다. 광주에서 강의를 온 교수님은 객수봉 한국화가였다. 처음 수업을 듣고 꼭 선생님의 개인전에 갔는데 “한국화와 남도의 맛에 매료돼 버렸다”고 심 작가는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광주에 그림을 배우러 다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거의 없는 도제식 교육을 받았어요. 선생님의 기교나 테크닉보다는 ‘인목’과 ‘태도’에 대해서 배웠죠. 작업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무엇이 좋은 것이고 진짜인지를 구별해내는 직관, 미적 판단 같은 것들이요. 그게 지금 저에게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큰 자산이예요.”

졸업 후에는 광주미협에서 근무도 하며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했다. 미협에서는

시립미술관 분관 위탁 관리 업무, 광주국제아트페어 운영지원부에서 예산 관리 일을 했다. 당시 경험으로 미술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작가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공모전이나 국제아트페어 등에서 일하면서 많은 작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광주에 빨리 녹아들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고 한다.

그의 작업은 ‘내면의 빛’(Inner Light)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한국 채색화의 전통을 기반으로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경계 공간을 초점화한다. 그에 따르면 화면 속 여러 겹으로 쌓인 색층과 투명한 빛의 표현을 매개로 내면의 무의식에서 빛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다. “단순한 이상향의 재현이 아니라 평온과 관조, 사랑이라는 내면의 심상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에 방점을 둘 뿐 아니라 “관람자가 작품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평온과 사랑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명상적 회화를 지향한다”고 심 작가는 언급했다.

20대부터 광주에 오고가며 이제는 ‘광주사람’이다. 그랬다는 그는 “광주에서 살아보니 밤이 너무 맛있고 물이 너무 좋다”며 웃었다. “남도의 자연 풍경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능력 있고 저명한 조정가의 계획 아래 조성된 것처럼, 그냥 길가에 심어진 나무들도, 산세도, 단풍과 풀의 색깔도 다른 곳과는 다르죠. 광주에서 남도 지방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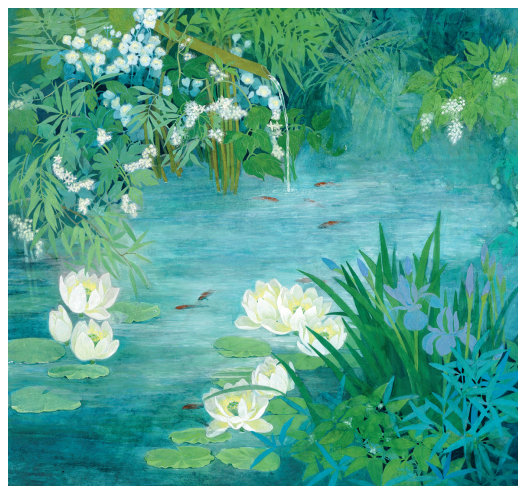
정말 오묘조묘, 아가자기하게 잘 가꾸진 정원 같으니까요. 사찰도 아담하지만 곳곳에 구경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작품 활동 틈틈이 화실에서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기에 그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간다.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하려는 분들이면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했는데, 생각 외로 우울이나 공황장애,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았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분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아름다운 색채를 보고, 낯설지만 한국화 붓과 한지를 대상으로 깊이 몰입하는 시간도 가지며 치유되는 모습들을 봤다”고 그는 그림이 주는 치유 효과에 대해서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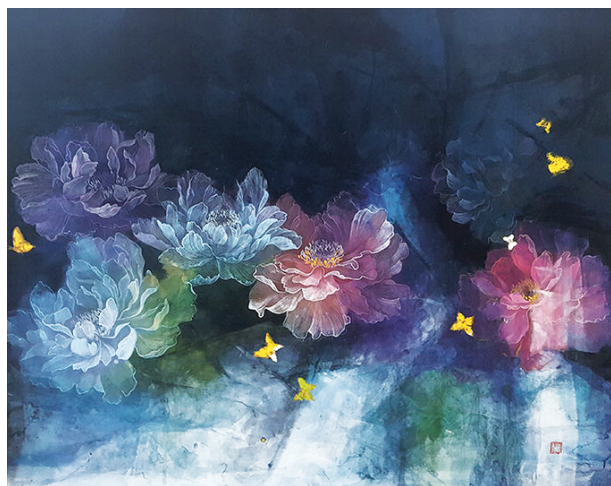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물었더니 “박사학위 청구전에서 선보였던 ‘More than Paradise’의 답론을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광주라는 멋스럽고 다정한 도시에서 받은 영감을 다시 예술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남도의 자연이 저에게 건네준 위로를 그림에 담아, ‘심다이’의 그림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 등불이 켜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심 작가는 대한민국 한국화 대전 최우수상, 정수미술대전 한국화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 미술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선경’(仙境)



‘promise’

새해 클래식 선율…순천에서 만나는 KBS교향악단

‘신년음악회’ 2월8일 순천문예회관

새해의 문을 여는 클래식 선율이 순천의 겨울밤을 채운다. 정동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성악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신년 음악회가 관객을 찾는다.

“KBS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2026 신년음악회”가 오는 2월 8일 오후 5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방송 교향악단으로 출범해 국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대표 오케스트라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여자경이 맡아 무대를 이끈다.

협연에는 소프라노 최정원과 테너 림박이 나선다. 풍부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사랑받은 최정원, ‘팬텀싱어4’를 통해 뛰어난 고음역대와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인 림박이 순천 출신 성악가로서 고향 무대에 오르는 것, 두 성악가의 다채로운 음색이 겨울밤을 한층 풍성하게 채울 것으로 기대



KBS교향악단의 자난 정기연주회 모습.

〈KBS교향악단 제곡〉

된다.

공연은 오페레타와 가곡, 오페라 아리아, 교향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윤학준의 ‘나 하나 꽃피어’, 김효근의 ‘첫사랑’ 등 한국 가곡과 함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마라’ 등 친숙한 성악곡들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이 연주된다. 밝고 생동감 넘치는 선율로 사랑받는 작품으로 KBS교향악단 특유의 탄탄한 합주와 풍성한 음향이 신년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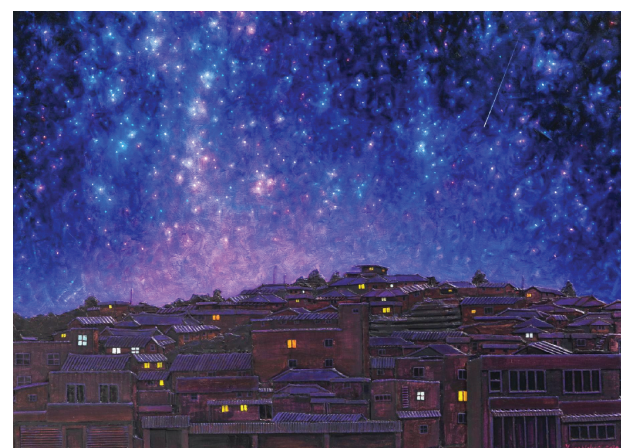
R석 3만 원·S석 2만 원·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 뉴스트’

3월 개관 복합전시7관 전시

이정기 작가는 일상을 ‘미래의 유물’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현재의 사물에 가상의 유물, 허구적 사실성 등을 가미해 현재를 미래의 시각으로 조망한다.

양·희 작가의 작품 주 재료는 골판지다. 자르고 이어 붙이는 ‘종이부조 회화’ 작업을 매개로 잊혀져 가는 삶의 모습과 일상을 풀어낸다.



양·희 작 '별의 밤'

이정기 작가, 양·희 작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전을 ACC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이 최근 선정된 ‘2026 ACC 뉴스트(Newst, New+Artist)’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오는 3월 개관하는 ACC 복합전시7관에서 펼쳐진다. 앞서 언급한 이정기, 양·희 작가 외에도 서영기, 임수범·하승안 등의 작품전도 계획돼 있다.

다. ACC는 작가와 1대1로 매칭해 기획, 공간 구성, 전시 운영 등을 협의하고 준비한다.

ACC는 작년 11월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ACC 뉴스트’를 통해 공모한 바 있다. 총 57개 팀이 응모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서영기 작가는 그동안 인간관계를 모티브로 은유적인 방식의 작품을 표현해왔다. 상실 이후의 기억, 장면들은 관계에 대한 사유를 하게 한다.

임수범·하승안 작가는 전시에서 신화를 매개로 존재와 세계에 대한 경계 등을 주목하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봄에 문을 열게 되는 복합 7관에서 진행될 ‘ACC 뉴스트’는 ACC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한편 ACC는 기존 복합전시1~6관 외 뉴스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복합전시7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향운·향습, 조맹 등 시설을 구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정기 작 '남녀노소'

‘모두예술극장 지역 공연’ 참여 공연장 모집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6일까지

장애예술 작품을 지역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이 ‘2026 모두예술극장 지역 공연’에 참여할 공연장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모두예술극장에서 제작한 장애예술 우수 작품을 지역 공연장으로 유통해 지역 간 문화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 관객의 공연 관람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실내 공연장

이며,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공연장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작품을 상연하게 된다. 공연료의 80% 이상은 장문원이 부담한다.

이번에 지역 공연으로 선보일 작품은 모두예술극장의 대표 레퍼토리 3편이다. 신경다양성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무용 공연 ‘야호야호 Echoing Dance’, 다문증후군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린 연극 ‘젤리 피쉬’, 다름과 공존을 주제로 한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이다. 각 작품은 장애예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이

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사업에서는 접근성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음성해설과 자막해설, 수어통역 등을 통해 장애인 관객이 공연을 보다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공연장을 대상으로 접근성 운영을 위한 실무 워크숍도 진행해 현장에서 관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돕는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장문원 누리집과 모두예술극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귀의 장문원 이사장은 “우수한 장애예술 작품이 지역 공연장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